

## “中 강제복송 지속한다면 국제사회가 좌시 않을 것”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 기자회견 개최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5일 서울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1월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일과 유럽연합(EU) 등 40여 개국이 공동제안한 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 즉각 폐쇄, 고문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북한정권에 의해 북한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고문과 처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국제법상 비송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며 “탈북민이 강제송환 되면 어떠한 고통에 처해 지는지를 국제사회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탈북민의 생명과 자유는 국경과 이념, 체제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그러므로 탈북민 강제복송 행위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륜적인 국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탈북민을 강제송환하고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중국밖에 없었으므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비록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원국에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것은 중국정부에 대한 성토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주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을 지속한다면 국제사회는 중국과 시진핑 체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탈북민들은 북한 체제의 극심한 정치적 탄압, 경제적 궁핍,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난민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범국민연합’이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

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에서 마주하는 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와 절망”이라며 “중국정부의 일관된 강제복송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탈북민들이 강제송환 되어 정치범수용소 수감, 고문, 공개처형 등의 극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정부는 1998년 북한과 체결한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협

력 협정’을 근거로 탈북민들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강제송환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제정한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그리고 1987년 고문방지협약에서 규정하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2023년 10월 우한바 이러스(코비드19) 기간 중 억류한 탈북

민 가운데 600여명을 항저우 아산개임이 끝나자마자 전격 강제복송 바 있다”며 “2024년에도 400여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강제복송 했고 특별히 4월에는 탈북민 60여명을 송환한 바 있는데, 이는 감정은 의 방중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북-중간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중국 내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인 성취와 인신매매를 방조하고 있다. 2023년 10월 대규모 강제송환 시에 15살에 중국에 팔려온 탈북여성이 25년 만에 강제복송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여성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중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복송 되는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탈북여성들이 강제복송 됨으로 인해 탈북민 2세들은 출생신고 미비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불가하여 질병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 내 탈북민 2세는 약 2만 여명

으로 추정되며 이 중 80% 이상이 정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은 탈북민 강제송환이 얼마나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인지를 양심이 있다면 깨달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강제송환을 반복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반문명 국가 국민으로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든 지도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 한국 웨슬리운동 22년... “말씀·성결운동 재점화”

웨협, 2025 송년음악회 개최하며 역사 돌아보고 비전 공유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양기성 목사, 이하 웨협)가 15일 서울 CCMM빌딩에서 ‘한국 웨슬리운동 22돌 2025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웨협은 지난 2003년 7월 웨슬리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미주 웨슬리학회 주최로 미국 LA에서 열렸던 ‘세계 웨슬리언 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2006년 웨슬리 신앙을 공유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구세군,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단체다. 현재는 기독교대한삼위일체교회(기삼)도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산목 목사(상임회장, 송의감리교회 담임)가 사회를 본 1부 감사예배에서 개회사를 한 웨협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는 “오늘 우리는 한국웨슬리운동 22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리기 위해 마음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운동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길, 성결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며 “한국웨

슬리운동 22돌을 지나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앞으로 20년의 길도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합창해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예배 기도는 박철우 사관(학술공동회장, 구세군대학원대 총장)이 드렸고, 손재형 장로의 성경봉독과 위두합창단(단장 양희숙)의 찬양(오 거룩한 밤) 후 손문수 목사(공동회장, 기하성 부총회장)가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손 목사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다. 예수님의 언약(지상명령)의 본질적 회복”이라며 “이것이 살아날 때 성령의 능력이 다시 임하고, 신앙은 형식이 아닌 실제 능력이 되며,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박요한 목사(학술총무, 은현감리교회 담임)의 진행으로 웨협의 역사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고, 김영선 박사(학술고문, 협성대웨슬리언연구소장)가 2026 비전선포를 했다. 이에 따르면 웨협은 ①말씀과 성결운동의 재점화 ②신학·교육 네트워크 강화 ③한국교회 연합과 공적 신앙 실천 ④글로벌 웨슬리언 네트워크 확

장 ⑤차세대 영성 리더십 세우기를 내년 비전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웨협은 내년 ①초교과 웨협 회원 1만 명 모집 ②평신도 지도자 조직 확장 ③웨슬리 어워즈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 김준철 사관(학술고문, 구세군대학원대 전 총장)과 이경의 목사(대표고문, 신촌성결교회 원로)가 격려사를 전했다. 먼저 김 사관은 “지금 이 바로 웨슬리의 성령의 복음만이 성령으로 성화케 되는 갱신의 바람을 일으켜서 한국교회에 변화를 일으켜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경의 목사는 “그 동안 웨슬리언운동으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웨협이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길 바란다”며 “웨슬리 신학의 초점은 칭의와 성화에 있다. 그것은 굴절된 것을 바로잡고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심어준다. 앞으로 웨협을 통해 웨슬리의 신학과 정신이 더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한진 교수(상명대학교)의 트럼본 연주가 있는 뒤 이영훈 목사(상임고문, 기하성 대표총회장)와 황덕형 총장(학술공동회장, 서울신대)이 축사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송년회가 지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행사 주요 순서자들이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김진영 기자

감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새해를 향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황덕형 총장은 “웨슬리는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경종을 울린 사람이었다. 그는 노예무역이라는 비도덕적 구조 위에 영국이 선 것을 보고 그 죄성을 폭로했다”며 “성결신학은 단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힘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정신”이라고 했다.

이후 예배는 참석자들의 찬송과 하성영 목사(행정총무, 한길교회)의 광고, 나세웅 목사(전 대표회장, 전 예성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고,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의 신간 ‘신학·철학·교회’ 출판 기념 및 송년음악회로 2부 순서가 이어졌다.

조진호 사관(학술공동회장, 구세군대학원대 전 총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선영 박사(부회장, 실천신대 교수)의 기도 후 김진두 박사(학술고문, 감신대 석좌교수)가 추천사를 전했다, 저자인 양기성 목사가 인사했다.

김진두 박사는 “이 책은 웨슬리 전통의 복음주의와 경건주의에 굳게 서서 다양한 철학과 문화의 도전을 받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온 저자의 순전한 기도와 신학과 삶을 담고 있다”며 “이 책은 웨슬리가 추구했던 ‘진정한 기독교의 실체’를 그대로 담았기에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신학도가 먼저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추천했다.

저자인 양기성 목사는 지난 1년 여간 쓴 70여 편의 칼럼들을 엮은 ‘신학·철학·교회’에 대해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대비, 웨슬리의

복음주의 전통, 교회와 국가의 관계, 지도자의 책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중심 메시지는 하나”라며 “루터의 오직 성자 예수님, 칼빈의 오직 성부 하나님, 웨슬리의 오직 성령님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자”는 고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신학자와 목회자, 성숙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순수성과 신학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성령의 능력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념 케이크 커팅 후 위두합창단과 트럼본 연주가 이한진 교수가 공연을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의 합심기도와 안준근 목사(학술고문, 나사렛대 명예교수)의 마무리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한국 웨슬리운동 22돌 2025 송년음악회의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2025-2026  
강원 방문이 해  
CheorWon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담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